

사람중심 명품도시로 - 종로는!

Jongno! - Towards Human Friendly Masterpiece City

종로는 지역 전체가 문화유적지로서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고궁과 인사동, 북촌, 청계천 등 관광명소가 집중되어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존할 부분은 보존하고, 개발할 부분은 개발하여 역사성은 유지하면서도 도시기능으로 발전시켜야 할 곳은 개발의 삽을 들어야 하는 등 도심지로서의 자존심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과 정성이 많이 투자되어야 하는 곳이다.

특히 역사문화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춘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거리나 건축물의 디자인도 종로만의 특색을 살리면서 주변과의 조화를 잘 이루도록 구성해야 할 뿐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건축 미술의 상징성을 내포해야 할 이유도 있다.

이는 세계의 유명도시들이 그 시대의 건축양식으로 역사의 변천을 이룬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한옥양식이라는 근사한 건축의 미를 창조해냈음에도 근대 이후로는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우리 고유의 건축 기술을 현대건축물과 조화롭게 승계 발전시켜 나가는데 소홀히 해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종로는 대한민국의 상징성이 있는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건축물 하나 하나를 짓더라도 고유의 성격은 훼손하지 않고 아름답게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건축물은 눈에 띄도록 창작적인 것을 추구해야 하는지,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편안한 건물이 좋은 것인지에 대하여는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겠지만 사용 용도에 따른 차별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프랑스 리옹에 소재한 라푸렛 수도원은 경건하고 안락함을 표현하였고, 스페인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건물자체가 하나의 미술작품같이 창의적인 디자인이 독특하여 이목을 끌 듯이 종교건물이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답게 표현되어야 할 것이며, 미술관이나 쇼펍센터 같은 건물은 창의성에 더 치중하여 발길을 건물 안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4대궁궐과 북촌 등 조선시대 대표적인 건축양식과 성공회 성당 같은 로마네스크식 근대건물을 보유한 종로가 이제는 건축역사의 변천을 승계하고 조화롭게 개발된 현대 건축미를 보여줌으로서 대한민국의 건축미술의 역사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명품도시 종로’, 이는 종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건물 하나 하나를 짓더라도 좀 더 예술성 있게 심혈을 기울여 도시의 품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며, 용도에 맞는 건물디자인을 통해 도시의 질서와 창의를 추구코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적인 외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당장 우선시해야 할 일은 불편하지 않고 안전해야 한다는 것이 명품도시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노약자, 장애인들을 위해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 경사가 급한 곳은 높이를 고르게 한 계단과 잡고 오르내릴 수 있는 난간, 공원의 휴식처에는 벤치 하나 하나가 사람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는 시설이 되었을 때 편안한 도시로서의 행복감을 줄 수 있다.

며칠 전 종로의 한 공원을 둘러보다가 공원벤치마다 노숙자 방치용 구조물이 설치된 것을 보게 되었다. 의자 가운데 설치물 때문에 할머니와 손주, 연인들이 떨어져 앉게 되다니 너무 비인간적이 아닌가! 벤치라는 휴식 공간과 정감을 제공하는 본연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종로지역은 이 벤치의 상부 구조물을 다 철거토록 하였다.

건축물도 마찬가지이다. 외형을 너무 중시하다가 전면 유리로 치장한 듯한 건물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는 에너지 절약과는 배치되어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주변과 잘 어울리는 건물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평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작은 시설물부터 도시를 채우는 건축물 하나 하나에 이르기까지 주변과의 어울림은 물론 사람위주인가가 고려될 때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가 완성되는 것이다.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거리미관을 해치는 조악한 건축시설물이 이젠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도시, 이와 더불어 역사적인 명소가 조화롭게 어울리는 도시가 종로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도시이며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종로를 찾는 세계인들은 “역시 종로는 명품도시야!” 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게 하는 그날을 위해 맘으로 종로를 디자인 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 생각하며 많은 이들의 동참을 기대해 본다. ■



김영중 / Kim, Young-jong
종로구청장

약력

- 건축사, 행정학 박사
- 서울시 한옥심사위원회 심의위원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 한국수자원공사 이사